

芝山 曹好益과 壬辰倭亂

-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

李 章 熙*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芝山の 起義와 活躍相 |
| II. 芝山の 起義背景 | IV. 倭亂을 통해 본 芝山の 位相 |
| 1. 宣祖의 西行과 西道民의 動態 | V. 맺음말 |
| 2. 強制徙民後의 芝山の 立地 | |

I.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宣祖 25년(1592)에 발발한 壬辰倭亂은 전쟁 초기에 있어서는 官軍이 望風潰散하여 참패를 거듭하는 참담한 싸움이었다. 4월 14일 왜군이 釜山鎭을 침범한지 20일이 채 못된 5월 3일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6월 15일 평양성의 방어도 실패로 돌아갔다. 선조는 같은 달 22일 義州에 이르러 목사관사를 行在所로 삼고 兩湖지방과 소식이 단절된 채 明나라 구원병을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와같이 초전에 있어 관군이 무력했던 것은 李太祖가 나라를 세운 이후 200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면서 위정당국자는 무사안일에 빠져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백성들도 전쟁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던차에 불시에 침입을 당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전쟁초기 2개월 간은 조선관군이 비참할 정도로 왜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여 전라도와 평안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8도 대부분이 적의 침입을 받아 온전한 곳이 거의 없었다.

한편 왜군은 조선관군만 무너뜨리고 의도한대로 북침만 강행한다면 조선은 곧 굴복하고 조선에서의 싸움은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들의 침략의 손길이 거쳐간 지역이나 아직 침입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철저한 유교정신으로 무장된 義兵將이나, 그를 따르는 義兵이 강열하게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 침략군의 큰 誤判이었다.

왜군은 침략 당초에는 큰 규모의 병력이었으나 침입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병력이 각처로 분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허점도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전국 곳곳에서 봉기한 의병의 저항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병력과 물자의 손실도 커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수군에 의한 制海權의 관장은 일본수군의 서해로의 진출을 차단할 수 있어서 당초 그들의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宣祖가 의주 행재소에서 계속 통치권을 행사하며 戰局을 만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왜란 초기 육전에서 관군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을 의병이 대신하여 관군이 재정비 될 때까지 크게 활약하였다.

본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芝山 曹好益도 왜란중에 儒學者로서 의병장이 되어 공을 세워 왜군을 퇴치하고 국권을 만회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러한 의병장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는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금번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芝山에 관한 연구계획을 세우고 그중에 〈芝山 曹好益과 壬辰倭亂〉을 한 주제로 잡은 것도 잘 밝혀지지 않은 芝山の 義兵活動의 實相을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중 의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의병장에 관한 활약상도 어지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芝山の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몇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그에 관한 의병자료가 극히 빈약하다는 것이다. 芝山이 남겼을 법도 한 의병기록을 《芝山文集》이나 또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그의 의병활동지역이 江東縣을 중심한 關西 지방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하에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과 함께, 그 지역에 전해오는 기록이나 그곳 故老들을 통한 임란당시의 의병활동상을 직접 접할 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한국사의 연구가 아직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을 밝힌다는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正氣를 일깨운다는 면에서도 마땅히 연구되었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芝山の 의병활동을 연구하게 된 것이지만, 사료가 부족하여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先學諸賢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II. 芝山の 起義背景

1. 宣祖의 西行과 西道民의 動態

宣祖는 釜山鎭이 함락된데 이어 東萊府가 함락되고 순변사 李鎰의 軍이 尙州에서 대패하고 왜군이 계속 북침을 가맹하자, 대다수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조와 그의 측근들은 도성을 떠나 西行할 계획을 은밀히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繩鞋(짚신)와 白金(銀)을 사들이는 등 피란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도성 고수를 주장하던 중신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국왕은 변명하기에 급급하면서 西行의 뜻이 없음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宣祖 25년 4월 28일 왕은 이조판서 李元翼이 일찍이 안주목사로 있었고, 崔興源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각기 善政을 베풀어 民心이 依附할 것이라 믿고 이원익을 평안도도순찰사로 삼고, 최흥원을 황해도도순찰사에 임명하여 먼저 가서 백성을 撫諭토록 하여 西行의 차비를 갖추자, 臺諫 및 原任大臣·宗室들은 社稷을 버리지 말 것을 애원하였고, 儒生들 또한 疏를 올려 선조의 西行을 반대하였다. 人心의 繫屬을 위해 光海君을 世子로 책봉한 것도 이날이었다.¹⁾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왕의 西行에 대한 是非도 4월 29일 저녁에 도순변사 申砮의 충주패보가 전해지자 급히 西行을 결의하였고, 밤이 깊어 李鎰의 狀啓가 도착하였는데 그 요지는 '왜적이 금명간에 반드시 도성에 다다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장계가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선조와 그 일행은 敦義門(서대문)을 나와 西行에 올랐으니 날은 이미 30일로 접어들었다.

왕의 행렬이 도성을 떠나자 亂民들이 맨 먼저 掌隸院과 刑曹를 불질렀다. 이 두 곳에는 公私노비의 문서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 內帑庫에 들어가 금과 비단 같은 값진 물건을 끌어내었으며,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을 불질러서 모두 소진되었고, 역대로 내려온 보화·귀중품과 文武樓·弘文館에 소장된 많은 전적과 春秋館의 각종실록, 다른 서고에 보관되었던 前朝史草 및 承政院日記 등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²⁾ 난민들의 이러한 소행은 오래 누적된 조정에 대한 불만과, 도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던 선조가 도성민 몰래 한밤중에 피란길을 떠난 배신감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라 하겠다.

선조의 西行에 따른 백성들의 원성은 도성민에 그치지 않았다. 왕이 개성·평양을 거쳐, 의주에 이르기까지 沿路의 백성들은 국왕을 순순히 맞이하지 않았다. 또 행차가 떠나도 군졸들이 도망가서 흩어지고 호위할 사람도 없는 지경이었다. 碧蹄驛까지 호종했던 廷臣들 중에는 호종행렬에서 이탈하여 도성에 들어가서 남겨둔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는 자들도 많아서 왕의 피난행렬은 더욱 쓸쓸했다. 왕의 일행이 馬山驛을 지나자 어떤 사람이 밭두렁에 있다가 대기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나라에서 우리를 버리고 가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꼬"³⁾라고 하면서 왕의 서행을 원망

1) 李章熙 〈壬辰倭亂과 서술〉(《서울六百年史》2권) pp.41~42참조, 1978.

2) 《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 25년 壬辰 4월

하였다.

5월 1일에 행차가 떠나서 개성으로 가려는데 대낮이 되어도 아직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군사와 인부들도 모이지 않았다. 장단부사 具孝淵은 도망쳐 숨어 나오지 않았다. 승지들이 직접 경기감사를 불러 지휘를 담당케 해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승지들이 화를 내어 꾸짖어도 대답이 없었다.⁴⁾ 황해도 관찰사 趙仁得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오는데 서흥부사 南嶷이 군사 수백명과 말 5,60필을 거느리고 먼저 왔다. 궁중 사람들은 두끼나 굶어 그 군인들의 양식을 찾아 허기를 면하였고 招賢站에 이르러 조인득이 길 가운데 장막을 치고 백관을 영접해서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⁵⁾

왕의 행차가 개성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중에는 선조의 失政을 들어 추궁을 하면서 왕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도 侍衛가 허술하고 약하여 막지 못하는 형편이었다.⁶⁾

6월 8일 왜군의 先鋒이 大同江 가에 이르자 선조는 평양성을 떠날 것을 명하여 재신 盧稷이 종묘위패를 모시고 먼저 평양을 떠나니 아전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격분해서 폭동을 일으켜 창과 칼로 마구 쳐서 종묘 위패가 땅에 떨어졌다. 난민들은 재신들을 보고 꾸짖어 욕하기를

“너희들은 평일에 國祿만 도적질해 먹고 국사를 그르쳐 이지경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城을 버리고자 하면서 우리를 속여 성 안에 들어오게하여 적의 손에 魚肉이 되게 하려는가”⁷⁾

라 하여, 거의 궁문에까지 덤벼들 지경이었다.

선조 일행이 도성을 떠나 의주에 이르기까지 왕을 호종하는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임금마저도 제때에 끼니를 잊지 못하고 闕食한 기록을 《宣祖實錄》이나 《宣祖修正實錄》 및 雜記類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뿐 아니라, 亂民들을 관리할 官吏들은 숨거나 도망하여 亂民들이 倉庫의 곡식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일이 많은 데도 명령계통이 세워지지 않았고, 따라서 질서도 지켜질리 없었으며, 一路가 텅 비게 되었다.⁸⁾

3) 柳成龍 《懲愆錄》권1, 壬辰 4월 30일; 申晸 《再造藩邦志》1

4) 朴東亮 《寄齋史草》下 (壬辰日錄)1, 5월

5) 申晸 《再造藩邦志》1

6) 李青翊 《燃藜室記述》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7) 《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 25년 壬辰 6월

8) “上至平壤 在途艱關 從官多餒 御供或闕 野人有進脫粟飯者”(《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 25년 壬辰 5월); “上西出後 平壤繼陷 列邑官吏潰逸 亂民焚劫倉庫 一路已蕩然”(《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25년 壬辰 6월)·“上發肅川 午次靈巖院 安州吏民盡散 不能支供”(《宣祖實錄》권27, 宣祖 25년 壬辰 6월 庚子)라고 한 기사는 그 一例라 하겠다.

왜란초 민심의 離反은 西道 뿐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었다. 李德馨이 용인으로부터 뒤따라 와서 복명하고 廟堂에 말하기를

“여러 도의 인심이 원망과 배반 안하는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욕설이 들리고 현저하게 반항할 기세가 보이니 오늘과 같은 사태에서 만약 별다른 조치로서 백성들의 감정을 위로해 주지않다가는 불측한 변란이 조석간에 있을 것이오.”⁹⁾

라고 한 것은, 민심의 향배가 전국에 걸쳐서 얼마나 흥흥했는가를 잘 말해준다. 민심의 離反을 막는 것이야말로 왜군퇴치 못지않게 중대사라 하겠다.

당시 西道(黃海·平安道)에는 평양에 小西行長의 부대가 둔진하면서 평안도에서 온갖 만행과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黑田長政의 부대가 해주를 근거지로 삼고 황해도내 列邑을 분탕하면서, 한편으로 海西民을 회유하기 위해 列邑에 榜文을 배포하였다.¹⁰⁾ 敵中에 있는 민중들은 살기 위해 투항하는 자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불순배도 있어 왜적을 가장하고 촌락에 침입하여 만행을 자행하는 자도 있었다.¹¹⁾

海西列邑 중에 왜군에게 투항한 자가 가장 많기로는 鳳山郡이었다고 한다. 宣祖가 行宮에서 海西지방의 民情을 물으면서 “황해도의 백성들이 다 敵中에 투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좌의정 尹斗壽가 답하기를 “다른 고을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오직 봉산 한 고을은 다 적중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¹²⁾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西지방에도 민심이 동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亂民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왕의 행방을 적에게 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肅川府 기둥에 어느 사람이 ‘大駕가 江界로 가지 않고 義州로 갔다는 내용의 글을 써 놓았는데 혹자는 그것에 대해 寧邊사람들이 왜적이 그 지방으로 올까 두려워 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그 글을 보고 상에서 있는 곳을 알게 하려고 한 짓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누구의 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亂民이 한 짓일 것이다.”¹³⁾

라고 한 것은, 그 예라 하겠다.

9) 李肯翊 《燃藜室記述》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10) “留花山 朝得日本榜文見之則 大略以爲黑田甲斐守豊臣長政 通諭黃海道兩班人民等 日本非是前日之日本 要與天下共享太平 寬徭薄賦 按堵如舊 大軍之過 大小迎謁 入山逃避者斬 自持軍器 盡納于官 違令者斬 雖宰相朝士避亂者 無隱來見 公私賤當盡爲百姓云”(李廷龜 《西征日錄》壬辰 6월 5일)

11) 李章熙 〈壬亂海西義兵에 對한 一考察〉, 《史叢》第14輯, pp.2~3, 1969.

12) 《宣祖實錄》권28, 宣祖 25년 壬辰 7월 丙戌

13) 《宣祖實錄》권27, 宣祖 25년 壬辰 6월 丙辰

이러할 즈음, 민심을 안정시키고 勤王兵을 일으키기 위해 함경도로 들어간 臨海君과 順和君 및 金貴榮, 黃廷彧 등이 叛民 鞠景仁 등에 의해 결박지어져 왜장 加藤清正陣營에 넘겨진 사건은 의주에 있는 피란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제 어디서 이러한 불상사가 또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국에 下三道(충청·전라·경상도)에서 먼저 봉기한 의병이, 황해도·평안도·함경도에서도 일어나서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왜군과 싸워 각지에서 전공을 세움으로써 재기의 기운이 확연하였다. 備邊司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賊勢가 어떠한지 오래도록 듣지 못하여 아득히 異域의 일 같았는데 지금 柳成龍의 狀啓를 보고 비로소 민심이 다 변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며, 義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때 事機가 매우 중요하니 병사와 조방장을 마땅히 뽑아 보내야 합니다. 풍천부사 黃允容과 평산부사 李思命을 조방장으로 삼으소서 하자, 상께서 따랐다.”¹⁴⁾

라고 한 것은, 의병의 봉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2. 強制徙民後의 芝山の 立地

芝山은 경상도 창원에 살았는데 退溪 李滉의 門下에 왕래하면서 명성이 점점 알려졌다. 그러던 그가 선조 8년(1575) 31세 때 평안도 江東縣으로 전가족과 함께 強制徙民을 가게 된다. 본래 조선초기에 徙民政策은 西北邊界 開拓에 따라 下三道民의 ‘抄定入居’가 꾸준히 이루어 졌으나, 燕山君 이후로는 정치·사회적 기강의 해이와 함께 하삼도민의 소요와 반발이 확산됨으로써 ‘抄定入居’를 시행하지 못하고 ‘犯罪人入居’에 의존하였다.¹⁵⁾ 芝山은 誣陷을 받아 억울하게 이러한 강제사민의 적용을 받았던 것이다.

芝山の 全家徙邊의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조 8년(1574)에 경상도사 崔滉이 軍籍의 정리차 창원에 와서, “軍籍의 검사와 감독하는 임무는 마땅히 한 고을에 명망이 있는 두터운 사람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芝山을 지명하였다. 芝山은 喪服을 아직 벗지 아니하였으며, 병이 또한 중하여 능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최황은 크게 성을 내며 閒丁 50명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芝山은 집의 家僮(종)들을 모두 내었으나 그 수대로 채울 수 없었다. 고을 원 이하의 사람들이 “천한 임무로써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다투어 말하자, 최황은 더욱 성을 내어 刑杖을 치기까지 하였고, 또한 土豪라고 狀啓를 올려서 평안도 강동으로 귀양(강제사민)가게 하였다. 芝山을 위로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다

14) 《宣祖實錄》권29, 宣祖 25년 壬辰 8월 庚寅

15) 李相協 〈朝鮮前期 北方徙民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213.

만 '운명이어니'라고 할 뿐이었고 태연히 귀양길에 나아갔으며 누구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關西사람들이 옛날부터 학문을 알지 못하였는데, 芝山이 江東에 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명망을 듣고 원근에서 배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렀다. 芝山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學規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가르쳤다. 그리하여 옛날 중국 春秋時代 子夏(공자의 제자)가 제자들을 교수하던 西河의 氣風을 방불케 하였다.¹⁶⁾

芝山은 江東을 중심한 원근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한편, 이곳에 守令으로 부임하는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선조 14년에 조부를 따라 강동에 온 李時稷(병자호란때 강화에서 殉死)을 가르쳤고, 선조 19년 金斐가 이곳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따라온 아들 興宇와 興孝가 芝山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손자 堉(효종때 영의정)도 배움을 청하였다. 후일 金堉이 芝山의 行狀을 撰한것도 芝山에게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다. 또 선조 30년 白沙 李恒福은 아들 井男의 교육을 芝山에게 청할 정도로 강제로 徙民당한 芝山의 立地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비록 귀양살이 신세였지만 선비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갈 길을 뚝뚝이 걸어갔다. 배움의 갈증을 느끼던 關西民에게 배움의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教化에도 이바지한 바가 컸다.¹⁷⁾ 특히 關西門人 중에 朴大德(호는 舍江)·尹瑾(호는 愚泉)·金翼商(호는 西庵)·洪德輝(호는 寒泉)등이 뛰어났다.¹⁸⁾ 그의 후진양성은 후일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Ⅲ. 芝山의 起義와 活躍相

왜란중 三南지방에서 먼저 봉기한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왜군을 위협하였다. 평안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내 여러 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曹好益을 위시하여 林仲良(樅)·梁德祿(鹿)·楊懿直·李德巖·高忠卿·車殷輅·車殷軫·宗室 湖城都正 등은 관서지방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이름난 의병장이었다.¹⁹⁾ 그 중에서도 曹好益은 林仲良과 더불어 왜군이 가장 두려워하며 경계하던 인물이었다.²⁰⁾

16) 李肯翊 《燃藜室記述》권17, 宣祖朝故事本末 關西義兵; 曹好益 《芝山集》附錄 권1, 年譜 萬曆 4·5·7년; 《芝山集》附錄 권2, 金堉 撰 〈曹好益行狀〉

17) 曹好益 《芝山集》附錄 권1, 年譜 萬曆 7년·9년

18) 曹好益 《芝山集》附錄 권1, 年譜 萬曆 7년

19) 《宣祖實錄》권30, 宣祖 25년 9월 壬申; 《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25년 壬辰 11월; 申 兪 《再造藩邦志》2(大東野乘 36권); 李肯翊 《燃藜室記述》권17, 宣祖朝故事本末 關西義兵; 《東儒書院叢錄》坤 宣祖壬辰倭亂, 各道義兵將 關西義兵(民族文化社刊 《書院誌叢書》 1, 1987) 참조

芝山은 崔滉의 무함을 당하여 軍籍에 관련된 사건에 연좌되어 全家가 강제로 徙民되어 江東에서 20여년이나 살았다. 그곳에서 生徒들을 가르치는데 열중하였고, 강동 및 이웃 고을 敎化에도 힘을 기울여 鄕里에서 芝山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다.²¹⁾

芝山은 강제사민을 당할 때는 일개 儒生에 불과했다고 할수 있겠으나 志操와 德行은 이미 남달리 뛰어났으며, 강동으로 사민된 이후에도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서 그를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學德을 갖춘 특이한 인물로 추앙을 받았다.²²⁾

선조의 피난행렬이 개성에 이르러 西厓 柳成龍은 芝山이 誣陷에 의하여 억울하게 강제사민된 자초지종을 왕께 아뢰어 伸冤의 당위성을 아뢰자,²³⁾ 왕은 특별히 그를 석방하라고 명하고, 이어 의금부도사의 관직을 주어 召募官에 임명하였다.²⁴⁾ 芝山은 명을 받고 中和에 급히 달려와 왕을 뵈었는데, 芝山을 보고 선조는 “그대가 關西지방에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니 속히 의병을 모집하여 대동강 江灘守將으로 임해달라”고 하였다.²⁵⁾

그러나 芝山이 의병 소모에 착수하기 전에 임금의 행차가 이미 평양을 떠났고, 강여울을 지키던 將卒들도 또한 무너져 흩어졌다. 芝山은 行在를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柳成龍을 만났는데 왕실의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다고 한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國祿을 먹는 신하의 충성이 도리어 草野의 충성보다 못하다”고 말하면서, 또 芝山에게 “勤王하는 것이 적을 토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자네는 돌아가서 군사를 불러 모아 수복할 것을 도모하라”하였다. 이에 芝山은 유성룡의 말에 따라 즉시 江東으로 돌아가서 門人 金鉉·朴大德·尹瑾·金翼商 등과 함

20) 왜군은 허수아비 둘을 만들고 그위에 칼을 대면서, “네가 曹好益이나, 네가 林仲良이나”하였다고 하니, 왜군이 曹好益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李青翊 《燃藜室記述》권 17, 宣祖朝 故事本末 關西義兵)

21) 《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 25년 7월

22) 宣祖 22년(1588) 芝山이 受由를 받아 先塋에 성묘하러 갈 때에 서울을 지나게 되었다. 崔滉이 듣고 찾아와 악수하면서, “들으니 그대가 江東에 거주한 이래 한 마디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니 참으로 命을 아는 君子이로다. 나는 자네를 모함한 까닭으로 하늘의 양화를 흑독하게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 하였으며, 그 뒤에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曹好益은 臣이 그릇되고 망명된 아뢰므로 오랫동안 귀양중에 있으니 신의 죄를 다스리고 급히 불러서 임용하기를 청하나이다”하고 아뢰었으나, 죄의 사면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 귀양살이 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었다. (《芝山集》附錄 권1, 年譜; 李青翊 《燃藜室記述》권17, 宣祖朝 故事本末 關西義兵)

23) 《宣祖修正實錄》권26, 宣祖 25년 7월條와 申晷의 《再造藩邦志》2 (《大東野乘》36권)에는 開京이 아닌 平壤에 이르러 芝山의 伸冤을 아뢰었다고 하였으나, 왕이 개성에 이르러 많은 죄인들을 석방한 것으로 보아 芝山도 개경에서 석방을 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24) 《芝山集》附錄 권1, 年譜와 권2, 行狀·諡狀

25) 《芝山集》附錄 권1, 年譜

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을 효유하니 응모한 자가 5백여명에 이르렀다.²⁶⁾

芝山은 軍陣에 있으면서 옷을 입은채로 잠을 자고 竹笠과 皮襪(가죽버선)도 하급군졸과 똑같이 했다. 혹자가 갖과 가죽신(靴)을 보내와도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아직 讎賊(왜적)을 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한다.²⁷⁾

선조 25년 10월 어느날 한밤중에 芝山은 급히 樞裨(副將)를 불러 軍陣을 속히 옮기도록 명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의병들은 다 옳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芝山은 명령을 어기는 자는 참수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 어쩔수 없이 옮겼다. 얼마 지나서 왜군이 엄습해 왔으나 芝山의 의병은 이미 멀리 가서 적군은 허탕을 치게 되었지만, 의병들은 芝山의 사전대피에 경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柳成龍이 말하기를 “芝山은 弓馬를 익히지 않았으나 한갓 忠義로써 병사의 마음을 격려하여 준 까닭에 많이 승첩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였다.²⁹⁾ 이말은 芝山을 정확히 평가한 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적의 기습을 예측하고 미리 군진을 옮긴 사실이라든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忠義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며, 평소 '南倭北胡'의 전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병서를 익혔던가 아니면 전쟁중에 병서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휘하의병 중에 무예를 익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그들을 잘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성을 수복하기 이전에 芝山은 中和와 祥原 사이에 험한 산을 타고 싸웠으며, 평양에 침입한 적의 배후를 위협하면서 약탈을 위해 성 밖으로 나온 왜군을 공략하여 전과를 거듭 올렸다.³⁰⁾ 비변사가

“(도원수)金命元의 狀啓에 曹好益이 새로 이겼다는 소식을 보고해 와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떨치게 하였는데, 수일이 되지 않아 잇따라 이런 승첩을 거두었으니,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의기에 차 힘껏 적을 잡은 실상과 一軍을 감동시켜 모두 죽을 힘을 다하게 한 정성은 사람마다 쉽게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³¹⁾

라고 아뢴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芝山義兵團의 활약상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해 평양성 수복전을 전개할 때 잘 나타난다. 선조 25년 12월 명나라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향하자 芝

26) 《顯宗改修實錄》권10, 顯宗 4년 12월 癸亥: 《芝山集》附錄 권1, 年譜; 李肯翊 《燃藜室記述》권17, 宣祖朝故事本末 關西義兵

27) 《芝山集》附錄 권1, 年譜

28) 《芝山集》附錄 권1, 年譜·同書 卷2 行狀 및 諡狀

29) 《顯宗改修實錄》권10, 顯宗4년 12월 癸亥·《芝山集》附錄 권1, 年譜; 同書 권2, 行狀

30) 《顯宗改修實錄》권10, 顯宗 4년 12월 癸亥

31) 《宣祖實錄》권33, 宣祖 25년 12월 戊申

山은 휘하의병을 거느리고 안주에 가서 원군을 맞이하고, 1월 2일 명나라 군사가 평양성을 공략할 때 명나라 군사를 따라 진군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명나라 장수 駱尙志·吳惟忠을 따라 普通門으로 진군하였으며 小西行長의 왜군과 충돌하여 많은 적을 사살했다. 이에 명나라 제독 李如松의 대군도 함께 진입하자 왜군은 지탱하지 못하고 內城으로 퇴각했다. 芝山은 또 명나라 군사를 따라 승세를 타고 내성을 공격하였다. 왜군은 성위에 흙으로 벽을 쌓고 구멍을 많이 뚫고 조총을 그 구멍에 대고 난사하며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였다. 李如松은 적이 이미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군사를 거두어 성을 나와 왜군의 퇴로를 열어놓았다. 芝山은 왜군이 밤에 도주할 것을 알고 즉시 대동강으로 가서 복병을 설치하고 적군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이날 밤에 적군은 과연 도망하였고 이에 芝山은 요격하여 왜군 수백명을 참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며,³²⁾ 또 남으로 퇴각하는 왜군을 추격하여 臨津에서 크게 격파하였다.³³⁾

그후 芝山은 평양에서 패주한 小西行長의 군사가 임진강을 건너 퇴각하였고 함경도로 들어간 왕자 臨海君과 順和君 일행이 叛民에게 사로잡혀 왜장 加藤清正 진영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휘하 군사를 전부 거느리고 北路로 달려가서 고원 땅 益水倉 근처로 들어갔다. 芝山은 퇴각하는 加藤清正의 군을 계속 추격하여 楊州에 이르러 要路에 복병을 설치하고 왜적을 기습하여 크게 격파하였다.³⁴⁾ 4월 18일 왜군이 도성에서 퇴각하여 남쪽으로 물러가자 芝山은 5월 왜군의 뒤를 쫓아 남쪽으로 내려가 梁山에 군진을 설치하고 연해 모든 군현을 표략하는 왜군에 대처하였다. 그후 明·日간에 和議가 진행되어 싸움이 중단되자 芝山은 關西에서부터 계속 芝山을 따르던 門人 金翼商·朴大德을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芝山의 의병은 완전히 해체하게 되었다.³⁵⁾

32) 선조 26년 6월에 明나라 經略 宋應昌에게 移咨한 各陣에서의 승첩과 노획보고에 의하면 芝山은 왜군이 石灘지방으로 향하며 인민과 가축을 살략하자 召募官 曹好益 등이 난사하여 首級 1백50顆를 베었다고 하였다.(《宣祖實錄》권39, 宣祖 26년 6월 己丑)

33) “(萬曆)二十一年癸巳先生四十九歲正月初二日 隨天兵 攻破平壤賊 隨天將駱尙志·吳惟忠等從普通門入 衝突賊陣 斬戮甚多 於是提督督大軍並進 賊不能支 退入內城 先生又隨天兵 乘勝攻內城賊於城上 潛設壁穴 亂發銃丸 提督知賊已困 收軍出城 以開歸路 先生知賊夜走 卽往浪江 設伏以待 是夜 賊果遁去 先生邀擊 斬首數百級 又追至臨津 大破之”(《芝山集》)(附錄 권1, 年譜): “(壬辰)十二月 天將李提督如松 率大軍而至 先生領兵 往迎于安州 正月初二 隨天兵進圍平壤從普通門而入 賊兵甚盛 莫肯先登城者 天將駱尙志·吳惟忠等 賈勇先登 先生隨之 衝穴賊陣 斬戮 無數 賊悉衆死拒 於是提督大軍 並進力戰 賊不能支 退入內城 先生隨天兵 乘勝攻內城 賊於城上 設土壁多穿穴 從穴中亂發銃丸 我軍多中傷 提督急令收軍出城 退陣以開歸路 先生度賊必走 卽馳往浪江 設伏以待其夜 賊果遁去 先生邀擊之 斬數百級 又追擊於臨津 大破之”(《芝山集》附錄 권2, 附壬辰事蹟)

34) 《宣祖實錄》권35, 宣祖 26년 2월 甲午; 《芝山集》附錄 권1, 年譜

35) 《宣祖實錄》권39, 宣祖 26년 6월 己丑; 《芝山集》附錄 권1, 年譜

그 뒤 芝山은 대구부사와 성주목사를 거쳐, 선조 27년 10월에 先代의 고향인 永川에 돌아갔으나, 굶주림이 심하여 다시 가족을 이끌고 江東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안주목사를 제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주를 지키게 하였다.³⁶⁾

선조 30년에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부사 曹好益이 江東 등처의 정예병 수백여명을 거느리고 왜적을 토벌하는 데 종사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義氣가 소문났었는데 지금 또 義兵을 모집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호위하도록 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傳敎하기를, 머물러 두어 그곳에서 활용하도록 하라”³⁷⁾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芝山은 和議가 결렬되어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또 江東에서 수백명의 의병을 모집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변사는 芝山의 의병을 불러 들여 호위를 담당할 것을 아뢰었으나, 선조가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하여 방수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芝山이 江東을 비롯한 關西지방 방수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芝山은 일찍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남쪽에 事變이 있으면 필시 북쪽에 患難이 있기 마련이라” 하고, 國防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지 2년이 경과한 선조 33년 겨울에 의병활동을 함께 한 강동에 사는 門人 金鉉과 朴大德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우리 북쪽 국경 200리에 여진족의 兵馬가 많이 모여 있으니 침입에 대비하여 다시 의병의 규합을 논의하라”는 것이었다.³⁸⁾ 女眞族의 침입을 염려한 芝山의 주장은 그후 丁卯·丙子胡亂이 일어남으로써 징험된 사실이었지만, 芝山의 國防에 관한 지식과 관심은 憂國衷情에서 우리나라온 것이었다.

36) “우리나라는 邊嶺은 대강 갖추었으나 內地는 유의하지 않아서 씻은 듯이 보장이 없으니 邊城이 한 번 격파되면 소문만 듣고는 붕괴되는 것은 피할 것도 없다. 지금 關西 中道로서 定州등처 같은 곳에 군사를 모아 屯守하여 聲援으로 삼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단 정주성의 형세를 살펴보면 지킬만한 곳이 못되는데, 이밖에 지킬만한 다른 곳이 없는지 살펴서 조치하라. 安州는 曹好益이 있으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武士 몇사람을 가려 보내어 조호익의 군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하여 조호익과 협력해서 조치,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宣祖實錄》권68, 宣祖28년 10월 己酉)라고 한 것을 보면, 芝山에 대한 선조의 기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7) 《宣祖實錄》권92, 宣祖 30년 9월 乙未

38) “(萬曆)二十八年庚子先生五十六歲…冬與金鉉·朴大德書 壬辰倡義 金·朴二公 實相先後 至是聞北虜多聚兵馬於我境二百里之地 遂與書二公 更議糾合義旅 先生嘗曰 自古有南變 必有北患 聞女眞以射獵爲事 馳峻坂如平地 須於險阻處 設砦以備 可得全 至丁卯·丙子而驗焉”(《芝山集》附錄 권1, 年譜)

IV. 倭亂을 통해 본 芝山の 位相

江東에 강제사민되어 오랜기간 귀양살이를 하던 芝山이 선조 서행길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柳成龍의 힘이 컸지만, 그밖에도 芝山の 學德과 人品을 잘 아는 重臣들 중에는 그의 석방과 등용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大臣들이 아뢰기를…이번에 사면된 사람들은 該曹로 하여금 歲抄에 의거하여 書啓한 다음 서용하도록 하시고, 江東에 유배된 曹好益은 인물이 쓸만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여 석방하여 상당한 職을 내림으로써 인재를 쓰는 길을 넓히소서”³⁹⁾

라고 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리하여 芝山은 강제사민 당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왜란 초기 의병의 역할에 대하여 李睟光이

“壬辰년에 임금이 서쪽으로 가니 나라안이 텅비고 적군이 가득하게 왔다. 명령이 통하지 않아서 거의 나라가 없어진지 달이 넘었을 때에, 영남의 郭再祐·金沔과, 호남의 金千鎰·高敬命, 호서의 趙憲 등이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키고 원근에 檄文을 전하니, 이로부터 백성들이 비로소 나라를 받들려는 마음이 있게 되었고, 고을의 士子들은 곳곳에서 군사를 모집 하였다. 의병장으로 호칭되는 자가 무려 백명이 나 되었으며, 왜적을 剿滅하고 국가를 회복한 것은 오로지 의병의 힘이였다.”⁴⁰⁾

라고 했듯이, 왜란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트이게 한 것은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柳夢鼎이 “曹好益은 백면서생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애써 싸운 것은 과연 上의 분부와 같습니다. 따로 선전관을 보내어 물품을 내려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⁴¹⁾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芝山에게 鹿皮 1장을 상으로 내리고 격려하였다.⁴²⁾ 芝山은 선조 25년 5월 의금부도사를 시작으로, 掌隸院評事와 工曹正郎(동년 11월), 大邱府使(선조 26년 6월), 星州牧使(선조 27년 3월), 安州牧使(선조 28년 5월), 成川府使(선조 29년 8월), 定州牧使(선조 32년 3월) 등을 지냈고, 선조 32년 永川 西陶村으로 돌아온 이후, 善山府使·南原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다 나가지 않았다.⁴³⁾

芝山の 벼슬은 군공에 비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39) 《宣祖實錄》권26, 宣祖 25년 5월 丁卯

40) 李睟光 《芝峰類說》권3, 君道部 賞功

41) 《宣祖實錄》권36, 宣祖 26년 3월 丁卯

42) 《宣祖實錄》권36, 宣祖 26년 3월 丁卯

43) 《芝山集》附錄 권1, 年譜 참조

芝山 자신이 의병활동 중에 전후 왜적과 싸워 왜군의 首級을 참획한 것이 많았으나 한 번도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에 論功을 할 때도 또한 幕下에 공을 돌린 까닭에 封勳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다.⁴⁴⁾ 明나라 장수 吳惟忠과 駱尙志의 말에 따르면, 평양성 공격전에 조선의 모든 장수들은 감히 먼저 城에 기어 오르는 자가 없었으나, 유독 芝山 만이 明나라 장수를 따라 矢石을 무릅쓰고 死地로 진입하는데 義氣가 더욱 왕성하여 그의 忠膽에 그들 장수도 미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⁴⁵⁾ 이것은 芝山の 용맹성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芝山이 비록 공을 알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밝혀진 공도 幕下에게 사양했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는 없었다. 그럴수록 그의 聲望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로 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었다. 芝山이야말로 高世의 학문과 絶人의 행동을 구비한데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으니, 왜란을 통하여 그의 명성은 더욱 떨치게 되었다.

V. 맺음말

芝山은 誣陷을 받아 억울하게 江東에 강제사민되어 20여년간 귀양살이 신세가 되었지만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후진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 배움을 청하러 오는 이가 수백명에 이르자 芝山은 學規를 정하고 이에 따라 배움을 갈망하던 關西民을 정성껏 訓導하는 한편, 教化에도 힘써 子夏가 제자들을 교수하던 西河의 氣風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芝山은 관서인 뿐 아니라 강동에 부임한 守令들의 자제도 가르쳐 큰 인물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關西門人 중에는 朴大德·尹瑾·金翼商·洪德輝 등이 뛰어났으며, 그의 후진 양성과 관서민의 教化는 후일 임진왜란을 당하여 관서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芝山은 오랜 기간 유배생활을 하던 중에 柳成龍과 여러 중신들의 건의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관직을 받게 된다. 선조는 관서민들이 모두 芝山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말을 듣고 의금부도사에 임명하여 召募官을 삼아서 의병을 모집, 江灘守將으로 왜군의 도강을 막을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芝山이 의병 모집에 착수하기 전에 선조가 평양을 떠났고 강 여울을 지키던 장졸들이 흩어지자 行在로 향하여

44) "(先生-芝山)前後擊賊 斬獲甚多 而一不報聞 及後論功 又讓於幕下 故封勳不及"(《芝山集》附錄 권2, 附壬辰事蹟)

45) "吳·駱兩將嘗謂人曰 平壤之戰 朝鮮諸將無敢先登者 獨曹好益 隨我冒矢石入死地 意氣益倍 其忠膽不可及也"(《芝山集》附錄 권2, 附壬辰事蹟)

떠났다. 도중에서 유성룡을 만나 그로부터 勤王보다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江東에 돌아가서 門人 金玆·朴大德·尹瑾·金翼商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관서민을 효유하여 5백여명의 의병을 모집했다.

芝山은 弓馬를 익히지 않았으나 한갓 忠義로써 병사의 마음을 격려했기 때문에 여러번 승첩을 거두었다고 하나, 적정을 살펴 적시에 군진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연전연승한 것을 보면 군사지식도 상당했던 것 같다. 그는 평양성을 수복하기 전에 中和·祥原 사이에 험한 산을 타고 싸웠으며, 평양에 침입한 적의 배후를 위협하면서 성 밖에 나와 약탈을 일삼는 왜군을 기습하여 거듭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芝山의 전투능력은 선조 26년 1월 2일 명나라 원군과 함께 평양성을 공략할 때 발휘된다. 芝山의 의병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명나라 장수 駱尙志·吳惟忠을 따라 普通門으로 진군하여 小西行長의 軍과 충돌, 다수의 적을 사살한 다음, 승세를 타고 內城을 공격했다. 적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안 명나라 제독 李如松이 왜군의 퇴로를 열어놓자 芝山은 왜군이 밤에 도주할 것을 알고 즉시 대동강으로 가서 군사를 매복시키고 적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이날 밤 적은 과연 도망하였고 이에 芝山은 요격하여 왜군 수백명을 참수했다. 또 퇴각하는 왜군을 쫓아 臨津에서도 크게 적을 격파했다. 小西行長의 軍이 퇴각하자 北路로 들어가 加藤清正의 軍을 공략하였고 퇴각하는 加藤의 軍을 계속 추격하여 楊州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기습전을 가맹, 적을 크게 격파했다.

그후 芝山은 퇴각하는 왜군을 따라 梁山까지 내려갔으나 明·日간에 화의진행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관서로부터 계속 따르던 門人 朴大德·金翼商 등을 고향 江東으로 돌려보냄으로써 芝山의 의병은 완전히 해체되기에 이른다.

丁酉再亂이 발발하자 재차 왜군의 북침에 대비하여 芝山은 또 강동에서 의병 수백명을 모집했다. 그는 왜란이 끝난 후에도 女眞의 침입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江東門人 金玆·朴大德에게 편지를 보내 그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했다.

芝山의 起義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의병활동을 통한 왜군 퇴치에 공헌한 것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起義가 亂民을 진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芝山은 軍功이 바탕이 되어 벼슬이 현직 牧使에 이르렀으나 공에 비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芝山은 참수한 왜군의 수급을 한번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며, 후에 논공할 때도 幕下에게 공을 돌린 까닭에 封勳이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고 芝山의 공이 감추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그의 聲望은 더욱 높아져서 추앙을 받게 되었다. 芝山이야말로 高世의 학문과 絶人의 행동을 갖춘데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데 공을 세웠으니 왜란을 통하여 芝山의 명성은 더욱 떨치게 되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門人 朴大德 등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했을 때 義兵誓約文 같은 것이 다른 의병에서와 같이 있을 법도 한데 찾을 길이

없다. 芝山이 선조 32년 2월 병환이 위중했을 때 평일의 雜稿들을 다 불태웠다고 한 것을 보면, 46) 名利를 멀리했던 芝山이 이때 의병과 관계된 文件들도 모두 소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46) “二月病劇 盡焚平日雜稿 嘗曰 經傳諸書 有朱子集註 又有或問及章圖義理之密 訓釋之詳 無復餘蘊 不必贅爲辭說 以取加疊之譏 故至是盡焚其平日所著 如易傳辨解·儒釋辨等書 皆不傳 其他著述 亦皆後儒掇拾煨燼之餘 殘編爛簡 十存一二 可勝惜哉” (《芝山集》附錄 권1, 年譜(萬曆)二十七年己亥 先生五十五歲)